



KSLA

# Bulletin

자랑스러운 KSLA人

김태승 | (전)국방과학연구소

## 자랑스러운 KSLA人

“도서관학 및 후배 사랑이  
돈독했던 대 선배 김태승”



나는 '도서관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1986년 00과학 연구소에 입소하여 약 10여 년간 근무를 하다가, '문헌정보학'으로 바뀐 '도서관학'을 공부하면서 석·박사과정을 하였다. 시대의 요구로 '도서관학'이라는 명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 명칭이 바뀌었고 그 색깔도 다소 바뀌었지만, 나에게서는 우리 연구소의 초창기 대 선배님이신 김태승 교수님은 '도서관학'에 대한 돈독한 애증과 후배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더 다가온다.

사실 교수님과 직접 함께 근무했었거나 사제시간과 같은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00과학연구소 및 원자력연구소에 초창기 근무하셨고, 전문도서관의 기반을 다지신 대 선배님이셨기에, 각종 도서관 행사 등에서 잠시 뵈 때마다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동학 후배로서 연대감을 느꼈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적게 되어 영광스럽다.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1987년경쯤으로 기억되는데, 교수님의 대전 삼부파트에서였다. 워낙 풍채가 있으시고 한껏 애송이 후배를 아껴주는 온화한 눈빛에 녹아서였

는지, 언뜻 옛날 왕후장상의 모습이 그러했을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 날 하시는 말씀 중에 고 박정희대통령께서 자료실을 방문하셔서 "님께서 기술정보실장을 맡고 있다며..... 자네만 믿네!"하셨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를 통하여 그 당시 우리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비추어볼 수 있겠다.

교수님은 1945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하셨고, 1968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1974년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1991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를 취득하셨다. 1970년부터 1984년에 00과학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장으로 재직하셨으며, 1976년 미국립기술정보센터(NTIS) 교환연구원, 1984년부터 1987년 송전대학교(대전)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처장, 도서관장을 역임하시고 198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고 금년 8월 정년퇴임을 하셨다. 또한 1995년부터 1997년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1997년부터 1999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2007년부터 2009년 제 23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 자랑스러운 KSLA人

등 한국 도서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교수님과 우리 전문도서관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대덕연구단지 설립이전 00과학연구소 자료지원실 차장으로 계시면서, 대전/충남지역에 유일한 전문자료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현재의 00과학 기술정보관리의 총 본산이 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셨고, 각종 기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로 연구개발 사업에 크게 기여하셨다. 교수님의 연구보고서 “기술자료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00과학연구소 연구보고서, DMD/RS 790033, 1979년”, “과학기술종합도서관 설립타당성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연구(공동연구).(BS E731-2663-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보고서”, “한국과학재단 연구보고서 관리 시스템 개발연구(공동연구). 한국과학재단 연구 보고서. 1992”, “00과학기술 한글 시소러스 개발(공동연구). 00과학연구소 연구보고서. 1993” 등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교수님은 “AD Report의 自動處理에 대한 system 研究.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64p.”이나, 다음의 연구논문들, 1) "미 국립기술정보센터" 도협월보 vol.16 no.2 (1975) pp.19-21, 2) "기술보고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 vol.39 no.1 (1984) pp.47-56, 3) "NTIS 서지 Data File을 위한 검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남 대학논문집 14집. (1984) pp.335-352, 4) "광기술에 의한 연구보고서 관리시스템 개발"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32집(1993) pp.169-199을 통하여 볼 때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고서의 체



〈사진. 김태승교수〉

계적인 수집과 관리 및 기술정보센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연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2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 (과천)에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전문도서관 중심의 (사)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와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공유협의회가 서로 힘을 모으는 통합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그 때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이기도 하셨지만 전문도서관에 근무하셨던 대 선배님으로서 후배들이 뜻을 모으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예전 “도서관학”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절에는 누군가 물을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데 어려웠다는 감회어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보여주신 교수님의 후배 사랑과 솔선수범에 감사드리며, 전문도서관의 불모지인 대전·충청 지역에, 최초의 전문도서관을 설립하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 선배, 김태승 교수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

글 \_ 김종환